

사회적 약자 복지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

전주시, 서부권 복합복지관·장애인체육복지센터·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원 등 올해 착공

전주시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도시 실현을 담당할 서부권 복합복지관과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원 등 복지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고 3일 밝혔다.

당장 시는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한다. 총 343억원이 투입될 복합복지관은 부지면적 5,079㎡, 연면적 6,850㎡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특히 복합복지관이 들어설 지역은 전주시 서부권으로 도시가 확장되는 신도시로서 전주시 전체인구의

13.8%(8만 8729명, 12월 기준)가 거주하는 인구 유입지역이다. 건물이 운영되면 복지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주민들의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시는 올해 7월 설계용역 마무리 후 착공,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연면적 6,400㎡ 이상 4층 규모의 건물로 체육관, 헬스장, 재활체육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으로 국비 50억원 등 총 344억 원으로 건립된다.

시는 주 이용자인 장애인과 유관 기

관, 관련 단체 등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체육복지센터로 건립한다. 시는 이곳이 본격 운영되면 생활체육에서 소외되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할 뿐 아니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도서관, 평생교육, 장애인복지관 등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시는 노숙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전주 사랑의 집'의 강당 신축도 추진한다.

그의 시는 북부권 반월동 지역에 연면적 3,411㎡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큰나무종합사회복지관'을 지난해

개관했다.

큰나무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 후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가능한 6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만 1,800여명의 지역주민이 복지관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은 "일상에서 사회적약자와 주민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으쓱이'와 함께 새해를 힘차게 시작한 전주시설공단 임직원들과 정운성 화백(아랫줄 왼쪽)

“'으쓱이'와 함께 시민 속으로”

전주시설공단, 으쓱이 탄생 알리기 위한 선포식 가져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공단 캐릭터인 '으쓱(ESSG)'과 함께 갑진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했다.

3일 공단에 따르면 전날 화산체육관 현관 앞에서 공단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으쓱이' 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선포식은 새해를 맞아 으쓱이의 탄생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시무식을 겸해 진행됐다.

으쓱이 현관은 화산체육관 현관 옆 외벽에 가로 2.3m, 세로 2.4m 크기로 내걸렸다.

으쓱이를 직접 디자인한 민병가 정운성 화백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으쓱이의 탄생을 축하했다. 정 화백은 현재 전북일보 민병가 '정운성의 기린대로 418'을 연재하고 있다.

공단은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공단 캐릭터 '으쓱이'를 만들었다.

'으쓱'은 E(Environment, 환경)와

S(Social, 사회), S(Safety, 안전), G(Governance, 지배구조)을 한글식으로 표기한 것으로, 시민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겠다는 공단의 의지를 담았다.

또 으쓱이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적극적으로 달려가겠다'는 의지를 역동적으로 표현한 캐릭터다.

머리 위 두 가닥의 깃털은 '인테나'를 상징하며, 공단과 시민의 쌍방향 소통을 의미한다.

목에 두른 '빨간 스카프'는 공단 로고를 응용한 것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갑진년 한 해 도 으쓱이와 함께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 한해는 으쓱이와 함께 시민 모두 '으쓱으쓱' 힘을 내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제1의 치매 안심 도시 전주 만들기 '총력'

예방·진단·치료·돌봄 통합관리 체계 구축 기반 마련

전국 제일의 치매안심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전주시가 지난해 치매관리 확대 계획 등으로 인한 성과에 이어 올해는 치매관리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접근성을 한층 향상시킬 방침이다.

시는 민선 8기 치료·돌봄 격저 없는 전국 최고 치매안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치매관리 확대 계획을 수립해 △치매 통합관리 체계 구축 △치매관련 인프라 확충 △치매친화적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치매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구체적으로

시는 선제적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1만3000여건의 조기 검진을 시행했다. 특히, 지난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120% 이하 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치매치료관리비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전체 등록 대상자로 확대했다.

등록 치매환자 1만73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5200여 명의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했다. 이들을 상대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돌봄재활 서비스를 제공했

다. 경증 치매 어르신 대상 인공지능(AI) 돌봄인형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정서안정을 돕기도 했다.

올해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자에게만 지원하던 치매간병서비스를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동불편·원거리 거주 이용자에게 '안심 송영 교통서비스' 지원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전북 최초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부지확정을 통한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쏟았다. 당장 시는 보다 전문적인 치매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북 공립요양병원 중 최

초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완료해 치매 인프라를 구축했다.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부지를 확정해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시는 디지털타운 공모사업 선정 및 치매안심마을 추가 지정 등 치매친화적 플랫폼 구축을 앞장섰다. 치매친화적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난해 6월 행안부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인공지능(AI) 기술 연계 협력을 위해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치매 예방부터 진단·치료·돌봄에 이르기까지 공백 없는 치매 안전망을 구축해 전주를 제1의 치매 안심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제12대 전주시의회 의정활동 대폭 늘어

제12대 전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재선과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이끌고, 2022년 6월 지방선거 후 새로 입성한 초선의원들의 열정이 가미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에 따르면 제12대 의회가 개원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의원 발의로 처리한 조례안은 모두 67건에 이른다. 이는 11대 의회 초기 1년 6개월 동안 발의한 조례안 48건에 비해 19건(28%) 많은 수치다.

행정에 대한 각종 비판을 통해 개선책을 찾거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위해 제언을 하는 5분자유발언도

크게 증가했다. 12대 의회 개원 후 나온 5분발언은 모두 154건으로 11대 의회 같은 기간 121건에 비해 33건(21.5%) 늘었다.

시정질문 역시 12대 의회는 67건으로 11대 의회(51건)에 비해 16건(24%) 늘었으며,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최한 정책간담회는 12대가 23건으로 11대 의회의 4년 전체 통계치(10건)를 이미 배 이상 초과한 상태다.

이런 의원들의 열의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내달 열리는 407회 임시회의 경우 이미 5분발언 신청 의원이 6명에 달한다. 의회사무국의 한 직원은 "차기 임시회를 2개월이나 앞두고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5분발언 신청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3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제12대 전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시의회 본회의장.

설명했다.

시의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본회의 때마다 5분발언 신청을 8건씩으로 제한하고 있고, 407회 임시회의 경우 2번의 본회의가 첫날과 마지막 날 열린다.

이기동 의장은 "재선과 3선 이상의

선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초선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화답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올해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임실교회, 전주예수병원에 발전기금 500만원 후원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전북 임실군 임실을 이도리에 터를 잡은 임실교회(송희종 목사)가 병원 발전기금 500만 원을 후원했다고 3일 밝혔다.

송희종 담임목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다"며 "예수병원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과 노력에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성도들과 함께 담당하고 싶다"고 말했다.

1920년 10월에 창립해 올해 104주년을 맞이한 임실교회는 100주년 기념으로 2020년 현 위치에 새 성전을 신축



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임실 공부방 △부실 은빛경로대학 △다문화가정 한글 교실 △희망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제10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1월 17일(수)~1월 18일(목)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및 주관: 전주매일신문사
전라북도스키협회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

